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0, 2022 Vol. 798

“교회 본질과 사명 되새기며 교회 연합 힘쓸 것”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1대 회장 심상은 목사, 이사장 신원규 목사 취임

지난 13일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개최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 교협) 제31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 회장으로 심상은 목사, 이사장으로 신원규 목사가 취임했다.

후원 이사장으로는 김영수 장로, 후원이사로는 정정건 장로, 안우성 장로, 송순철 장로, 민김집사가 추대됐다.

신임회장 심상은 목사는 한 해 동안 교회협의회 수순성을 지키면서 지역 교회의 연합과 목회자들의 영성 강화를 위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OC 교협은 올 한 해 회원교회를 정리해 신문에 공고할 계획이다.

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우리의 지체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며 “오렌지카운티 지역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힘을 모으고, 온전한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을 때, 세상은 병들고 온갖 범죄가 가득했다”며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삶의 가치 기준과 도덕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신원규 목사는 “올해는 OC 교협 소속 모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직전 회장 박상목 목사는 신임 원단을 향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OC 교협



좌부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직전회장 박상목 목사, 신임회장 심상은 목사, 신임 이사장 신원규 목사, 직전이사장 이호우 목사 ©기독교일보

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박재만 목사(OC 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김근수 목사(OC 목사)의 기도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이 됩시다”(행 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오렌지 카운티 모든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역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임식에는 오렌지카운티 검찰 총장 토드 스피저, 권석대 장

로(OC 한인회장), 씨니 박 부에 나락 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 미셸 스틸 박 연방하원의원, 최석호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통해 커뮤니티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美 복음주의자 30% “더 깊이 있는 가르침 원해”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10% 미만이 예배 중 짧은 설교를 원했지만 3분의 1의 응답자는 더 심도 있는 가르침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그레이 매터 리서치(Gray Matter Research)와 인피니티 콘셉츠(Infinity Concepts)는 지난 7일 ‘교인 평가표: 복음주의

자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 1천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배 출석하는 교회의 14가지 요소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만이 설교가 더 짧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85%는 설교 길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약 8%는 설교가 더 길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레이 매터 리서치의 론 셀러스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복음주의자들 중 더 짧은 설교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목회자의 설교가 길고 장황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더 짧은 설교를 원하는 복음주의자(특히 청년들)의 비율이 20% 또는 30% 정도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는 자신의 교회에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기 원했으며 69%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인피니티 콘셉츠 CEO인 마크 드레이크스태드는 “복음주의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더 깊은 설교를 원하는 것이 특히 놀랍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통찰은 복음주의자 중 30%가 자신의 교회가 현재 제공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이것은 성경읽기 능력이 매우 낮은 우리 문화에 좋은 소식이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열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편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추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기독교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고 싶습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폴리 해서는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 精誠** 정성
- 責任** 책임
- 信賴** 신뢰
- 辯護** 변호
- 實力** 실력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입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성공회목사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세 장소 이전”

대면/전화상담예약은 **213.820.3704** E-mail: **marhlaw@yahoo.com**
사무실 : 213.487.9190 Fax: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v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미주한인이민 119년 “더 큰 발전 향해 도약하자”

‘미주 한인 날’ 제119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LA 다운타운에 소재한 밀레니얼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미주 한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미 주류사회에서 정치, 경제 활동을 확대하며 더 큰 발전을 향해 도약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LA 총영사관 권성환 영사대행을 비롯해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박영선 부에나팍 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최근 갑작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미켈 스틸 박,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 황인상 주 상과울루 총영사, 판리 LA 시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최석호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미주 이민 역사를 기념하면 후세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가 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친다면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미주 한인들이 우리의 이민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간 우호증진에 힘쓰자”고 전했다.



‘미주 한인 날’ 제119주년 기념식에서 최석호 주 하원의원 등이 한인 이민 119주년 기념 선포문을 전달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이종용 목사는 “그 옛날 하와이에 도착한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며 “미주 한인 역사가 119년이 됐는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 이집트가 축복을 받았듯, 이제는 우리 미주 한인들을 통해 미국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선 부에나팍시 부시장은

“미주 한인들이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 주류 사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이명철 목사의 사회로 김인수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전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H. 쉐러 목사의 아들 로버트 A. 쉐러 목사가 설교했다.

축도는 최순길 목사가 했다.

쉐러 목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설교했다.

한편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미주한인재단 LA가 미주한인 이민 120년을 기념해 출간

하는 ‘미주 한인역사를 빛낸 위인 16인(16 Great Figures Bringing Glory to Korean American History)’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미주 한인역사를 빛낸 위인 16인’에는 김마리아(김인수 박사, 팔호 안은 글쓴이), 안창호(김창환 박사), 강영우(김홍신 박사), 임동선(남종성 박사), 이승만(박정환 박사), 이휘소(박창현 박사), 백남준(박현옥 박사), 서재필(송인서 박사), 유일환(옥세철 논설위원), 이대위(유석중 목사), 김은국(이상명 박사), 백일규(이성숙 작가), 새미 리(이예진 연구원), 홍명기(이종윤 작가), 김계용(임윤택 박사), 하와이 한인이민여성들(최윤정 박사)등 120년 미주 한인 이민역사를 빛낸 16명의 업적이 소개된다.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돼 미주류사회와 한인차세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이상명 총장은 “책에 소개되는 우리의 조상들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리의 롤 모델과 같은 분들”이라며 “한인 사회를 비롯해 미국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신학과 목회 필요”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신년 목회자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강사 박성일 목사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총회장 신원규 목사)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갈보리 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과 설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했다. 또한 설교 준비 시 인본주의 및 경험주의적 성경 해석에 대

한 위험성을 제기하며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요구했다.

박성일 목사는 “세상의 시각과 관점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옷을 입혀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적 설교보다는 성경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 진리를 오늘날 통용될 수 있는 용어와 문화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목회자들이 컨텍스트만을 바탕으로 한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 성경을 해석하기 보다는, 성경을 근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신학과 목회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 감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성경 자체에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2022년 신년 목회자 세미나 기념촬영

대한 신뢰감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체하며 만족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를 마련한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신원규 목사는 “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며 “2022년 한 해도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욱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교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미주 지역 사회 발전 도모, 한미관계 증진 앞장 설 것”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초대 회장 우대권 목사 취임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설립 선포식 및 회장 취임식이 지난 10일 LA 코리아타운 소재 JJ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됐다.

해외교경중앙협의회는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훈련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미주와 해외 지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찰국과 카운티 셰리프와 협력 관계를 증진해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경협의회 회원에게는 모국 방문 시 신분을 보장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우대권 목사(영광빛복음교회 담임)는 “해외교경중앙협의회가 미주 지역 교포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

라며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과 자연재해, 정신적 또는 사회적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 및 취임식에는 LAPD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명예회장 에드워드 구 회장, 민주평통LA협의회 종교분과 위원장 정요한 목사, 기독교 자유 감리회 박영서 전 감독이 참석해 축하했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한인 동포 커뮤니티의 치안과 한미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해외교경중앙협의회의 설립을 축하한다”며 “지역 사회의 경관들을 후원하며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교경협의회 해외선교분과위원장 및 해외교경중앙협의회 공동 사무총장 윤



경찰청 해외교경중앙협의회 설립 선포식 및 회장 취임식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석평 목사는 “LA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 전역,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로 해외교경협의회 설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본 협회가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교경중앙협의회 공동 사무총장 전모세 목사는 채플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교육하고 커뮤니티와 단체간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배는 전모세 목

사의 사회로 오렌지힐스교회 ED 리더포드 목사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2022년의 계획”(렘 29: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경증회장)가 축도했다.

김동욱 기자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많지만 마음을 만지는 장면을 담아야죠”



엘에이씨티교회 사진 강의 야외 사진 촬영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로 마음을 만지는 사진을 담고 손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엘에이씨티교회(담임 씨니 김 목사)에서 진행된 마음을 만지는 사진강의는 단 하

루 만에 사진의 기초적 지식뿐만 아니라 청강생들의 열정적인 수강과 오후에 이어진 야외사진 촬영 과정을 통해 사진작품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사진에 대해 배운 경험이 없었던 한 수강생은 오늘 촬영한 사

진에 대해 다같이 리뷰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품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사인 김현진 목사는 20년 넘게 사진을 담아 온 경험을 이번 강의에 녹여내면서 특별히 이번 강의가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만지는 사진을 통해서 엘에이와 전 세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씨니김 담임목사는 LA씨티교회가 이번 사진강의 뿐만 아니라 전시회와 사진 테라피, 음식 테라피, 일터선교사훈련 등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문화 선교와 힐링 사역의 통로가 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산타페 상담소에서 해답을 발견하세요”



미주장신대 김경준 교수(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미주 장로회신학대 (총장 이상명 박사) 협력 기관인 산타페 상담소 (소장 김경준 박사)가 새해를 맞아 상담소를 미주장신대 본관 1층으로 이전하고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나눌 상담실이 없었던 LA 남쪽과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하다.

산타페 상담소는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적 지식의 통합을 통한 전인적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산타페 상담소는 미국의 HIPAA 규정을 준수하는 Thera-Link라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2월 설립된 산타페 상담소는 개소 이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사역이 중단됐다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오는 21일(금) 오전 10시, 재오픈 감사예배를 드린다.

예배와 세미나는 모두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santafec.org)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낳지 않는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복음통일선교도서. 박상원 목사.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낳지 않는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장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열매이다. * 제고대상: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력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W Valencia Dr
S Brookhurst Rd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BHE TRACS CHEA
기독교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선교학 박사 (D.Miss)목회학 석사 (M.Div)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신학사 (BA)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수여한국어, English, 중국어, Spanish Track 운영중LA Extension (317 W. Palmer Ave., Glendale)유학생 1-20 발급연방정부학비보조(FSA), Pell & Cal Grant수여대면, Zoom Sync, 통신으로 강의 수강 가능학사 학위부터 석사학위 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박사과정은 50%)HD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강의 제공

릴리재단 백만불 그랜트 수령

Grace Mission University는 Lilly Endowment Inc.로부터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내일을 향한 첩경 이니셔티브) 2차에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1,000,000의 Grant를 받았습니다.

GMU는 이 Grant로 21세기 신학 교육을 받은 미래의 목회자를 제공하는 신학대학원이 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릴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 미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개선 프로젝트
- (2) 다문화/다인종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 (3)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디지털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
- (4) IT & 미디어에 능숙한 미래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릴리 인다우먼트는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1937년에 J.K.릴리 시니어와 그의 아들 엘리와 J.K. 릴리 Jr.가 제약회사인 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재단입니다.

Tel : 714-525-0088(대표) 입학문의 email :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8

“1월에 보내온 이슬람 선교 보고(3)”

엘에이 목회자 비전 스쿨을 수료하고 연이어 옴포(단기선교)훈련을 마친 후 1월에 목회자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중동의 S 나라와 J 나라로 각기 6명, 12명으로 구성되어 단기선교를 떠났다. 대부분 단기선교팀은 정한 시간에 현지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기선교사의 안내를 받는다. 선교지 상황이 좋은 곳은 현지의 선교센터에서, 없는 곳은 에어비엔비 시설을 숙소로 이용한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 문화와 기본 언어 훈련을 다시 점검받고 매일 2-3명이 한 조가 되어 공원 혹은 가정 방문 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님들이 처음엔 고전한다. 생활 가운데 설교는 많이 하였으나 복음을 한 영혼에게 그것도 선교지에서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으로 입을 열기가 처음엔 쉽지 않다. 그렇게 어색함으로 시작하여 며칠이 지나면 또한 지체롭게 복음을 잘 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룹도 목사님들이다. 목사님들은 영혼을 대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늘 교회에서도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사역자들이기에 선교지에서도 처음 어색한 시기만 극복하면 현지 영혼들의 아픈 부분을 가장 잘 파악하는 팀도 목회자들이다. 물론 목회자 팀에는 사모님들도 포함된다. 어느 팀은 한 교회에서 목사 부부와 장로 부부가 같이 참여하여 선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선교지에서 기본적 훈련을 받고 복음 증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교팀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구분되지 않는다. 오직 전도자로서 불신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슬람 지역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강했던 중동의 나라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해도 개인적으로 거절을 하거나 저항은 있지만, 과도한 핍박이나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 S 나라의 선교 편지 가운데는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날로 예수

님을 영접하는 영혼들까지 생기고 그 영혼이 자신들의 친척들을 불러 모아 전도 집회가 된 사례도 있다. 단기선교팀은 거기까지의 사역을 담당한다. 그 후에는 한국과 미주 중심의 다국적 학생 파송 선교사(SM)와 청년 선교사(YG) 등의 1년 이상 파송 사역자들이 장기 선교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동역하고 있다. 현지 영혼들은 그들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어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후방의 교회에서는 건물 밖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을 걸고 목사가 있고 주일예배와 성경 공부가 공개적으로 열리는 우리와 같은 교회를 기대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 지역에서의 교회는 아직까지 가정교회식의 초대 교회 상태가 주로 많다.

전도팀의 간증이다. 40~50대 남성들로 이루어진 J 나라 팀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언덕의 막다른 길을 만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차 한잔 마실 수 있느냐 했는데 괜찮다 하며 집안으로 청하였다. 따뜻한 홍차와 과자 등을 대접받고 둘러보니 수제가구를 만들어 파는 고소득의 청년이었다. 전도팀은 차를 마시고 젖은 옷을 대중 말린 후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약 한 달 전 어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자신은 너무 슬퍼 어머니 누우셨던 침대에 그대로 누워 거의 한 달간 집 밖을 나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일행이 있었다 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대접을 잘했을 텐데라며 미안해하는 청년의 눈에 눈망울이 고였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모세를 통해서 보는 영적 리더십(1)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국자 모세가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의 출생은 노예의 자녀로서 대단히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고 초기의 삶은 애굽에서 애굽 언어와 애굽 문화와 무술을 배우고 성장한 배경을 가졌다.



박광철 목사
슬트하우스선교회 대표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길에서 40년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끌었다.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에게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보면 탁월한 지도력의 뚜렷한 특징이 적어도 30 가지가 나온다.

1) 하나님을 만난 경험 (3:5, 33:22-23) : 호렘산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사역에 들어서는 것은 자신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도 모르면서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다.

어느 목사는 부임하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목사가 된 지 수십 년 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다. 그 동안은 교단의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을 뿐 중생하지 못했던 것이다.

2) 분명한 소명을 가졌다

(3:10) :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길에 들어선다. 이것 저것을 시도해 보다가 차선책으로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삶의 우선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 또는 영적인 선배의 조언을 통해서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다.

3)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 받았다 (3:12, 13:22, 33:14): 그것이 그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요 배경이다. 큰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경제력과 체력, 지혜와 담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를 대항했다.

4)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가졌다 (3:14):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를 원한 것이다. 애굽에서 노역하는 히브리인들과 불신앙의 애굽인들이 그에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

해야 할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출 3:14).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전하는 분 곧 하나님에 관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5) 그에게 고난이 있다 (3:19): 대가(代價)를 치르지 않는 지도력은 쓸모가 없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의 길에는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

6) 하나님이 그의 지도력을 확인하셨다 (4장, 7-10장) :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를 크게 하셨다. 모세가 자기가 그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싶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을 뎀에 넣었다가 빠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깨끗이 낫기도 하고, 나일강에서 떠 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기적을 보이셨다.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한다.

7) 용기 있는 사람이다 (7:1): 그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지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용기이다. 비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고통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나서야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기독교일보 창립 18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 시간안내

현장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예배

일천번제 특별새벽기도회
“One Thousand Offerings”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Mon-Fri 5:30am, Sat 6:00am

금요성령집회(Friday night Service)
7:30pm

주일 예배(Sunday service)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평일): 2:00pm
EM : 1부: 9:20am, 2부: 11:30am

www.gracemi.com/온라인예배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널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CBSTV CH 20.12	오전 09:0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9: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특별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국)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8: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기독일보 텍사스지사 창간 인터뷰 3 - 휴스턴 갈보리침례교회 두지철 목사]

“말기 암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더욱 큰 사랑으로 성도들 돌봐”

미주 기독일보는 텍사스 지사 창립을 맞아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등 텍사스 지역 주요 한인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세 번째 순서로 휴스턴갈보리교회 담임 두지철 목사와의 인터뷰를 신는다. 두 목사는 2007년 갈보리침례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후 14년째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 오고 있다. 최근 말기 위암에서 회복된 후 더욱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목회하고 있다는 두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목회의 큰 행복 요소로 꼽았다.

-휴스턴 갈보리침례교회는 지역의 중형교회로서 말씀 중심으로 잘 성장해 온 교회로 평가되고 있다. 목회 철학을 소개해달라.

담임을 맡고 난 직후부터 항상 목회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기존의 목회 스타일에서 바꾼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적 관계성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

특히 설교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해설교도 많이 하고 있다. 주일설교는 예배에 참석하는 대상의 폭넓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수요예배는 조금 더 헌신된 분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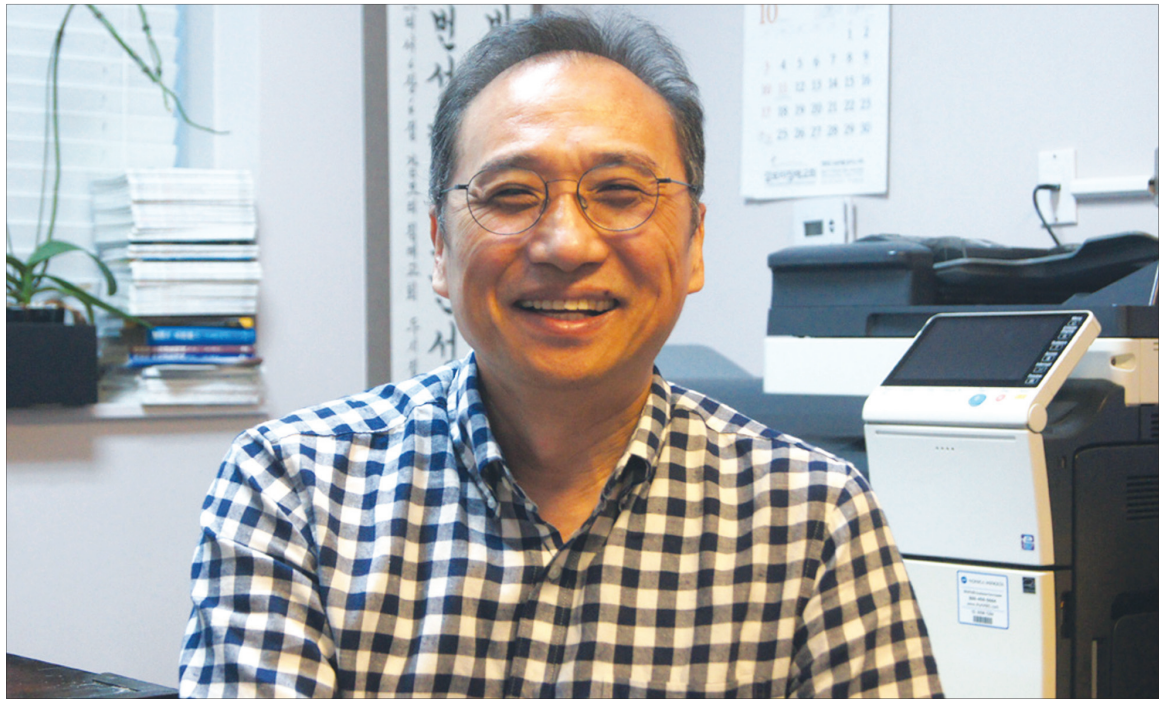
-담임목사가 자주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는데, 교회 내 특별한 분쟁의 요소 없이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워낙 교회 토양 자체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계속 사역

을 해 올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이 용봉 원로 목사님 또한 교회를 물려나시고 바로 지역을 떠나셨고 그 이후 후임에 대해 일절 간섭하려는 것이 없었다. 교회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대 목사님이 1986년 교회를 개척한 후 21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제가 그 목회를 물려 받았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매주 주어진 시간 동안 충성스럽게 해나가자는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고 그렇기에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목회가 됐다. 교회도 이제 건축한지 11년 됐는데 건축을 시작할 시기가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계속됐던 때여서 건축을 될 수 있는 한 간소화해서 진행했다. 교인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건축현금도 받지 않고 기본 골격만 갖춘 소위 '깡통' 수준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공간들이 다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목사실도 목회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목회자가 업무를 보다 주일날이면 성경공부방이 되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건축을 최소화 한 것은 외형보다는 건강하게 내실을 다지는 본인의 목회철학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 이전의 목사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교회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었고 기존 건물을 팔고 기본적인 건축재원은 확보할 수 있었다.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한국사람들 교회가 건물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크게만 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무리한 건축의 과정 속에서 상처가 생기는 것보다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휴스턴 갈보리침례교회 담임 두지철 목사 ©기독일보

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건축 이후의 정기적인 모기지 비용 등은 실제 이 건물을 누리는 분들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말기 암 투병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안다. 처음에 진단받을 때 시한부 선고와 같았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다.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냥 담담했고 '여기 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컸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기간이 여기 까지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교회 리더십에 사표를 제출했다. 여러 암환자를 봤지만 회복과정에서 매우 힘든 것을 봤고, 저 또한 암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목회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임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저에게 안식년 삼아 6개월을 치료에 전념하라고 배려해줬고 다행히 한국에 가서 5개월 만에 회복을 하게 됐다. 위암 말기였지만 항암치료를 통해서 암부위를 축소시키는데 집중했고 감사하게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위암 말기의 회복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 전과 마음가짐이 달라진 점이 있는가.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사람을 보는 눈빛,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이 전에는 막연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자세가 됐다. 그것에 더욱 감사하

고 있다. 그리고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동안 열심히 바쁘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해오다가 지나쳤던 많은 부분들도 돌아보게 됐다. 그 동안 살면서 삶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별로 없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이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 동안 간간히 써 왔던 글도 그렇고, 주로 설교가 정리할 것이 많다. 매번 할 때마다 나름 고민하고 신경을 쓰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뒤서는 안되겠다고 느낀다. 설교집까지 낼 생각은 아니고, 지금도 설교한 것을 후에 목회자들이 원하면 보내주고 있다.

-교회의 표어가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인데, 말기 암 치료 후 접하는 이 표어가 더욱 남다른 것 같다.

저는 암 진단 전에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은 지금의 시점에서 제 목회를 생각해보면 그 감사와 행복은 더 커졌다. 하루 하루 더욱 감사함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행복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도 제가 긍정적인 편이고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스타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사람 자체가 감당이 안되니까 좋은 분들 주변에 많이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목회의 행복은 무엇보다 성도들의 변화를 볼 때 가장 크다. 우리교회는 주로 이민생활 중에 혹은 이민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중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찾았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왔다.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다보니 말씀으로도 많은 위로를 주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 이어졌다. 우리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볼 때 큰 목회의 보람을 느낀다.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목회의 어떤 부분에서 도전을 겪고 있고 극복해 가고 있는가.

팬데믹이 주는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염려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또 주일에 영상 한번 들어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예배에 잘 참석했다고 안주하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노년층은 교회 못나오더라도 집에서 헌금봉투에 헌금을 모아뒀다가 오랜만에 대면예배에 나올 때 헌금함에 넣는 등의 최소한의 신앙적 구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팬데믹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이후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 된 나쁜 자세나, 흐트러졌던 신앙의 기준들을 바로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창한 기자

기독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본당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45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수요일 오후 07: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영어), 11:30(한국어)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09: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주일 대예배

예배 모임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수도권 담임 내려놓고 울산으로 새로운 개척 떠나는 목사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 개척 7년 만에 '분립개척' 결정

부교역자가 6명이 될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한 수도권 교회 담임목사가 7년 만에 멀리 떨어진 울산에서의 새로운 개척을 결정,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나이로 올해 51세로 'SNS 스타 목사'로도 알려진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는 지난 주일 이었던 9일 '안디옥 교회(사도행전 13: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다음날인 10일 SNS에 해당 사실과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행신침례교회를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관성 목사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문자와 연락이 들어온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이라 낯간지러워 그냥 있으려 했는데, 몇 마디 말

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행신침례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울산으로 개척을 떠난다. 행신교회 운영위원회와 전 성도들에게 9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한 그는 "행신교회는 7년 전 개척해 충분히 성장했다. 교세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사역자가 6명이니, 대략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에, 더욱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관성 목사는 "동시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절에, 부사역자들을 교회 개척이라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김관성 목사와 우성균 목사.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저와 아내, 지호와 지은이가 다시 교회 개척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교회 개척의 원리는 간단하다.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능력과 준비가 된 사람이

가면 된다. 저와 저희 가정의 개척을 가는 것은 그 이유 하나뿐"이라며 "무엇보다 욕망은 상항성의 삶, 소명은 하항성의 삶을 추구하기에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김관성 목사는 "(부교역자인)

우성균 목사가 충분히 훈련받았고,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랐다. 그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담임목회에 나설 나이와 준비가 되었다"며 "교회는 이런 젊은 목사를 키워야 하고, 선배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우성균 목사가 맡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친(페이스북 친구) 가족들에게 부탁드린다. 기도해 달라. 이 일이 저의 의가 되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 감사드립니다"며 "6월까지 여기서 목회하고, 7월에서 창립기념일인 11월 첫 주까지 휴가를 받아 본격적인 준비와 개척을 시작하려 한다. 창립일에 돌아와 고별 설교하고 떠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호 기자

류영모 대표회장, 文 대통령에 "정부-종교 서로 존중해야"

7대 종단 지도자 청와대 간담회... 文 "백신 접종 확대 마음 모아 달라"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에서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왼쪽)이 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사회 문제 해결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협력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류 대표회장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문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

로 바이러스 대응, 백신 접종 확대,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종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나누며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종교계) 범회, 예배, 미사 같은 신앙

활동은 자제해 주셨고, 부처님 오신 날 경축법회와 연등회 같은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까지 방역을 위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숭선수범을 보여주셨다. 그 같은 협조 덕분에 이번의 4차 유

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고비가 아직 남아 있다. 설 연휴와 맞물리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라며 "정부와 종교계 간에 코로나 대응 실무협의 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종교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접종 대상자가 3차 접종까지 빨리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며 "50대 이하의 3차 접종률이 오미크론의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해소에 종교계의 역할이 아주 크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류 대표회장은 "정부와 종교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 문제는 프로그램과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신앙적)인 가치의 문제이기에, 정부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 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교

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2022년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 "공동체성/오프라인 회복"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 '다음세대', '사회와의 소통' 뒤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해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주제로 '공동체성/오프라인 회복'을 꼽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연구소 구독자 6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교회 키워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3%가 위 주제를 선택했다. 이어 '다음세대' 18%, '사회와의 소통' 15%, '소그룹' 13%, '디지털/온라인' 11% 순이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늘면서 목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다"고 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진행됐다.

한편 연구소는 홈페이지(<http://mhdata.or.kr>)에서 "귀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소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트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10분
 - 2부 오전 11시 10분
- 청년·대학부**
 - YES 청년부: 주일 오후 2시(본당) • 금요집회: 매달 첫째주 오후 8시(본당)
 - 영어청년부(NEXT): 주일 오전 9시 10분 / 오전 11시 10분(KDC Hyssop Hall)
 - 한어대학부: 주일 오후 2시(KDC Hyssop Hall)
 -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10분(은혜채플)(holywave.org/ecollege)

교회학교 주일 2,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10분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112호)
 * 모든 예배와 모임은 COVID 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 772-7777 E-Mail: office@sarang.com
 교육관(킹덤트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Tel: (714) 563-2422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속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김기성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를 훈련하며, 이인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경건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가 왜 무미건조한지 의아해 한다.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강림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년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정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같고 내 밧줄 같으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목회자가 가져야 할 새해 결심 10가지는?



새해에 목회자가 결심해야 할 10가지 ©Tim Mossholder/ Unsplash.com

-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샘 레이너(Sam Rainer)가 쓴 '모든 목회자를 위한 새해 10가지 결심'이란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 교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장 거침없이 말하는 상대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신앙을 나누겠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할 힘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쏟는다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경건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가 왜 무미건조한지 의아해 한다.
- 교인들의 말을 더욱 청중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비전과 그것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대한 많은 말이 있다. 그러나 경청하는 기초가 부족하면 원대한 비전은 주저앉고 만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 감사하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할 사람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들며 우리 대부분은 영화(glorification)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 용서는 가장 실전이 부족한 영적 훈련 중 하나다.
-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당신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격려 받지 않더라도 영적 은사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당신이 교인들을 격려하며 더 많이 이끌수록, 교회는 더 많은 격려의 문화를 가질 것이다.
- 규율에 있어 제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라.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져라. 책을 읽어라. 일정을 잘 지키고 시간을 관리하라.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규율에 대한 입증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할 것이다.
- 더 많이 웃겠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웃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불의를 심각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설교가 더 필요하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목회자가 더욱 절실하다.

김유진 기자

美 종교연구소

“교회 과반수, 코로나 중 모멘텀 성장”

미국 하트포드 종교연구소(HIRI)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교회 및 기독교 단체의 과반수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역을 확장했다고 보고했다.

연구소는 올해 초 '페이스커뮤니티 투데이' 소속 13개 교단과 종교 연구소가 협력한 5개년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회에 전염병이 미치는 영향 탐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7만 5천 개의 미국 교회가 사역, 기금 및 물품 공급에 참여하거나 확장시켰고, 개별 교회는 3개 이상의 봉사 활동을 시작 또는 확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교회 중 4분의 3(74%)은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교회 중 3분의 2가 새로운 사역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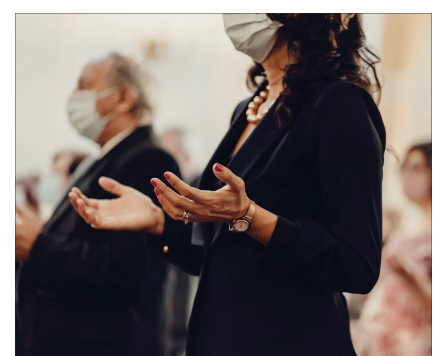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 교회가 수행한 새롭고 강화된 사회봉사활동과 지역 사회 사역의 수준은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조사에서 교회 중 22%가 "식량보급을 추가하거나 늘렸다"고 답했으며, 21%는 "지역 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거나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교회의 28%는 지역 사회 지원 사역을 시작하거나 확장했고, 전화를 통한 정보 제공과 격려 메시지, 노약자를 위한 진료 차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4분의 1은 교회 공간을 사용하여 노숙자 지원, 보육 및 사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회 5곳 중 1곳은 백신 클리닉을 주최하거나 마스크 제작, 의료 최전선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유행병 관련 사역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 속 교회 예배 풍경 ©Unsplash.com

또 교회 중 12%는 정신 건강 사역을 시작하거나 늘렸고, 6%는 투표 참여나 인종차별 반대와 같은 사회 활동 사역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기독교 교단 지도자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교회들의 태도 변화와 다양성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2020년에는 교회 4곳 중 3곳 미만(73%)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가까이 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올해 11월에는 86%로 증가했다.

공동 연구원인 엘리스 노튼은 '릴리전스서비스(RNS)'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국가가 힘든 시기에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면서 "많은 교회가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실험과 변화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1월에는 교회의 38%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올해 여름의 28%, 팬데믹 발생 전인 26%보다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았다.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교회는 23%(11월)로 올해 여름(16%)에 비해 늘어났다.

김유진 기자

中, 온라인 전도 막는 새 법안 제정한다

“승인받은 종교단체만” “중국화된 내용만” 허용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 종교 콘텐츠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으로 자국민의 종교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빅테크 기업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검열의 힘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신종교연구센터의 간행물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행정조치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이 3월 1일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종교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려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인터넷 종교 정

보화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만이 가능한데, 즉 사실상 중국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5대 종교에 속한 단체들만이 인터넷을 통해 종교적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5대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운동, 중국가톨릭애국협회다.

6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9,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된 소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비터윈터는 “5대 종교 내 단체들도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



©Unsplash/Macau Photo Agency

다”고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이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방송

하지하며 당국에 의해 ‘중국화된’ 내용이여야 하고, 개종의 도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또 종교대학과 단과대학은 학생들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전파하거나 미성년자가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면허가 없으면, 분향, 서품, 찬송,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이미지나 댓글 공유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 법은 종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금지는 종교의 선전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강혜진 기자

‘신성모독’ 혐의로 풀려난 파키스탄 기독교인, 망명 신청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대법원 청사 전경. ©AFP 뉴스 에이전시 보도화면 캡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제 지도자들에게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간청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6일 신성모독 혐의로 4년간 감옥에 수감된 가톨릭 신자 나딤 삼손(Nadeem Samson)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다. 그러나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조사는 지방법

원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삼손의 형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셰이크 안준(Shakeel Anjum)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우리는 매우 두렵다”고 밝혔다.

안준은 이달 3일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기독교인 자파르 바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우려하며 “재판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이 법원을 출석하는 도중에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는 보석 상태에 있었고 총에 맞아 사망했다. 누군가가 그를 법정에서 죽인 것”이라며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안준은 동생의 석방을 촉구하며 트위터에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 공장의 한 지배인이 무슬림 폭도

바나바스펀드 보고서 “재판 전 살해당한 기독교인만 15명” 경고

들에 의해 산 채로 화형 당하는 영상을 리트윗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요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 캐나다 정부에 형제들의 망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삼손은 구금 기간 동안 라호르 지방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문을 당했고, 신장결석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11월, 삼손은 암들 하크라라는 남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키스탄 카톨릭 신자가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뒤 체포됐다.

그러나 안준은 이 남성이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삼손에게 지불해야 하는 4000달러를 갚지 않으려고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생을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남성은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4년간 법정에 한 번도 출두한 적이 없다고 뒷

붙였다.

파키스탄 형법 295-C조는 “누구든지 말이나 글, 어떤 비판이나 비속어, 암시 등의 가시적 표현을 사용해 거룩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성한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더럽히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한다.

초교과 기독교후단체 ‘바나바스 펀드(Barnabas Fund)’의 국제 이사인 패트릭 숙데호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에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실상을 지적했다.

숙데호는 이날 회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불만을 품거나 특정 기독교인을 상대로 무기화되어 왔다. 현재 파키스탄에 신성모독죄로 최소 5명의 기독교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20명이 투옥되어 있다”라며 “1990년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성모독 혐의로 최소 15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LA office/Showroom

리|모|델|링

전문

오픈기념 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전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창간 18주년 축하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원로

지난 18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 타격, 교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단 없이 기독언론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올뿐 아니라 힘든 여건가운데도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기독일보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4의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잘못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를 비판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독언론도 예외는 아닌 줄 압니다.

지난 18년간 기독일보는 다른 여러 기독언론지들보다 편집도 깔끔하고 내용도 알차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 발전해 온 것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기독언론지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돈보다 더 귀한 세상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경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기독일보는 무엇보다 지난 18년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문서선교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지난 2천 년간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려는 노력과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온 것을 치하드립니다. 기독언론지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 특별히 탈 기독교 또는 반 기독교 문화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기독일보는 바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다방면으로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동포사회와 교계의 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전도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기독언론의 사명 중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영성이 풍성한 경건생활에 힘쓰도록 인도하는 지파가 또는 나침반의 역할을 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도 많이 힘쓰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교계의 일치와 연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약점의 하나가 하나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므로 권위가 추락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비웃음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되고 연합할 때 복음도 더 효율적으로 전할 뿐 아니라 대정부나 사회를 향해서도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에서도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독일보가 차세대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1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신앙전통과 사역을 차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느냐

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어주지 못할 때 1세대들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1세대들의 신앙전통과 사역을 후세들이 잘 이어가느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혼신을 다해 헌신해 온 기독일보 사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을 향하여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갖고 한인 이민사회에서 기독교 문화창출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하며, 한 인사회를 탈피해서 미국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에게도 읽히고 영향을 주는 기독언론지가 되기를 모색해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인터넷 시대, 스마트 폰 시대에 발 맞추어 어떻게 신문이라는 매체를 이어가면서도 5G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기독 미디어로서 생존해 갈 수 있으며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을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기독일보가 Upgrade 되고 놀라운 발전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확장과 선교의 매체로서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기독일보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지난 18년동안 교회 안팎의 복음의 소식을 신실하게 전파해왔습니다. 교회를 향한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시는 모든 언론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일보는 단순히 교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연합한 교회들을 돕고, 가나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역할도 감당하는 문서 선교지였습

니다. 저도 팬데믹을 지내며 기독일보를 통해 지역 교회들의 대처와 믿음의 행진들을 보고 들으며 많은 지혜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ITU(국제 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 수가 55억명을 돌파 했다고 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67%인 53억명을 넘어섰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선교에 길이 막힌 곳이라도 미디어는 이미 세계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선교의 황금지대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미주 한인들을 위한 기

독교 언론으로 지난 18년간 신뢰를 쌓아간 기독일보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 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독일보가 가진 차세대 비전을 응원합니다. 현재 이민 교회마다 잃어버린 다음세대를 향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교육부 사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민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안이 되고자 기독일보에서는 1세와 2세가 연결될 수 있는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데, 이 일에 많은 관심과 협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일보를 통하여 교회가 연합되고, 유익하고 좋은 복음의 소식들을 더 널리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일보는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이미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균형잡힌 시각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외롭고 힘든 언론 사역의 길에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이인규 사장님과 모든 기자분들, 및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찬섭 목사
한길교회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nexcollisioncenter.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비자,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민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당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www.newstarrealty.com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ABHE, ATS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학부(BA), 목회학부(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부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9-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종교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창간 18주년 축하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기독일보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언론 사역을 통해 한인 사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지난 18년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온 기독일보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 보다 예배 드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회출석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으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인원을 모두 합해보면 그다지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힘든 기간을 잘 견디고 오늘에 이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교(架橋)의 사명

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세상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간의 위로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풍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각기 제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주장함으로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일관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세상을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듯이 기독교는 절망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기독교 언론기관도 가교(架橋)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기관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고 더 나

아가 교회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대면의 기회를 약화시켰으나 비대면의 상황에서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던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한 현들에 대하여 기독교를 옹호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언론기관은 기독교 외곽 기관으로서 세상을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유통기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다시한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것 만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문화도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성경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그 현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도로 인하여 다시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언론기관은 그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가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 오면서 미주 여러 한인교회들의 예배와 사역들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독일보는 이 땅에 많은 복음 중심의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간 18주년을 맞이하는 기독일보는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목회자들, 중직들 및 모든 성숙된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글과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에 기대가 큼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문, 온오프라인의 뉴스들,

SNS 및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저 분이 말씀하시는게 과연 내가 아는 복음 맞나?' 혹은 '저 분이 읽으시는 성경이 내가 읽고 있는 똑같은 성경이 맞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목사님 성도님 자신이 보고 느끼고 강조하고 싶은 문맥 또는 '컨텍스트(context)'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됩니다. 오직 성경 본문인 '텍스트(text)'가 컨텍스트를 지배해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의하며 신학생들에게 강조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변하지 말되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문화와 시대에 맞춰 변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음 전파의 지혜가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만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텍스트

를 활용만해야지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집어삼키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이 곳 저 곳에 있는 신전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행 17:23)"라고 써놓은 단을 보았다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있어 그리스의 신화나 신전 문화는 그저 컨텍스트로 활용된 것이지 절대 텍스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학적, 목회적 트렌드를 보면 일부 특정 계층이나 성향, 그리고 목적이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초점으로 복음을 그들만의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심지어 그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해석하지 않으면 예

수님이 원하는 해석이 아니라 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학교에서 배운 관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면 그것은 미혹하는 영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텍스트를 읽는 기독교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읽어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 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그런 'Way Maker'의 역할을 잘 해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독일보와 기독일보를 맡아 헌신하는 모든 리더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은상 목사
달라스 세미나리교회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밥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창간 18주년 축하



이돈하 목사
오레곤벨렐장로교회

기독일보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기독일보의 땀과 눈물에 깊은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기독일보를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은 신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론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독일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요1:14)을 닮은 언론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기독일보는 진리를 전달하는 차가운 지성과 더불어 은혜로 약자를 감싸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신문

입니다. 둘째 교회를 사랑하는 신문입니다. 기독일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듯 교회를 아끼고 비판에 빠르기보다 교회가 추구할 바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작고 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셋째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복음 언론입니다. 기독일보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문서선교를 위해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주와 750만 해외동포

가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를 넘어 북한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로 귀히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넷째 본질을 사수하면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신문입니다. 새 술은 새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불변하는 복음을 급변하는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기독신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창의력과 개척정신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도전을 담대하게 돌파하며 뉴노멀 시대를 선점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째 진리 안에 연합을 위해

힘쓰는 신문입니다. 기독일보는 지역과 세대와 교파의 담을 넘어 복음 안에 서로 존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과 동시에 분지를 통해 연합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창간 18년을 맞는 청년기의 기독일보가 진취적인 푸른 기상을 품고 주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민자들을 사명자로 변화시키는 신문, 교회와 세상에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메신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주 기독일보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창간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들과 한인교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기독 정론지로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까지 크나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기독일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협력 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한인교회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소개하여 미주 교민과 교회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교회와 고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독일보의 노력을 통해서 한인 교회와 교민들이 지금까지 가깝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코비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미디어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인 각

교회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취재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지우치지 않는 공정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주시는 기독일보 기자 및 임직원분들과 이인규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공인 목사
휴스턴 새누리교회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소를 잡아 각을 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데, 때마침 회의가 있다며 농장관리위원

회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 할 수 없이 제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끌려가서는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오니 안전부 사람들이 문 앞에 지키고 섰다가 내 손목에 족쇄를 철컥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매우 준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군 안전부는 네놈을 도군 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반당반혁명 죄와 살인죄로 체포한다.” 이런 중에도 나는 속으로 ‘간나 새끼들,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소를 잡은 것이

불법도살이지 어떻게 살인죄냐며 항변했다. 하기는 북한은 장군님이 쥐를 보고 토끼라 우기면 졸병들도 토끼라고 복창하는 사회니, 도살이면 어떻게 살인이면 어떠랴.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성경이 지시하는 문자 그대로 따르면서 위협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내게 또 한 번 큰 축복을 주셨나이다. 제가 언제든

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전부 사람들은 장군님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서 감방에 끌려온 나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 북한에서는 정신병자를 ‘49호’(과거 종교인·지식인 가운데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단 수용한 포로 수용소)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과거에 군인들이 소를 잡아

먹었다가 모조리 총살당한 사건을 모르지 않을 텐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니, 도무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장군님의 소를 잡아먹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을 거라고 했다.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사람이 소보다 못한 존재란 말인가? (계속)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nd AL FLEXIBLE LIFE INSURANCE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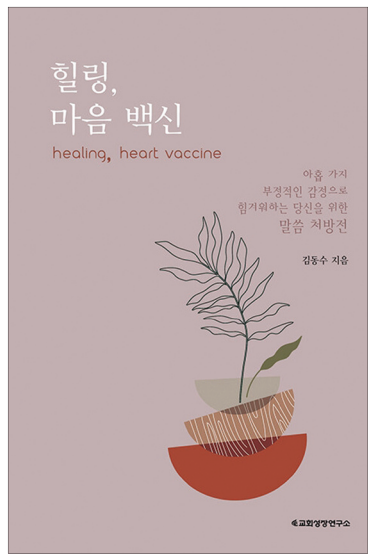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제출서류, 제출 마감일, 제출처, 기타.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교회(소개), 2. 지원자격, 3. 제출서류, 4. 제출방법.

김동수 목사 저서 <힐링, 마음 백신>

“하나님의 빈자리,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사람은 아홉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겨워할 수 있다. 스트레스, 슬럼프, 상한 마음, 외로움, 분노, 불안, 약점,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이다. 이 감정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김동수 목사(안양 주일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처방전을 집필했다.

이 책은 ▲스트레스 ▲슬럼프 ▲상한 마음 ▲외로움 ▲분노 ▲불안 ▲약점 ▲열등감 ▲죄책감의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외로움'이 눈길을 이끈다.

김동수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아픔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다. 코로나19 신조어 가운데 ‘거리두기’라는 단어만큼 무서운 말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고 고립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소소한 행복마저도 빼앗아 가버렸다. 지금 우리는 모두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등장한 이색 아르바이트 중 ‘모닝콜 아르바이트’가 있다. 보통 모닝콜은 휴대폰 알람이나 시계 알람을 사용하

지만 이를 신청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깨우는 것이다. 대부분 혼자인 사람들이 이용하며 그 이유는 외롭고 사람이 그립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에 대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수백 명씩 친구를 맺고 소통하지만 실제의 삶은 더욱더 외롭고 고독해지기만 한다. 둘째로 외로움은 돈과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외로움은 쾌락과 향락과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로움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절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

울 수 없다”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였지만 말년에 그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데도 그는 외로움의 상황을 극복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3가지 요소를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지만, 주님께선 떠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외로움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로움의 공간과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말고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는 것이다.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인생은 너무 짧다. 외로워하며 자기연민에 빠져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럴 때 외로움은 남의 일이 될 것이다. 외로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역이용하길 바란다. 외로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럴 때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김동수
교회성장연구소 | 232쪽

마음이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성경적 처방전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홉 가지 감정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밀 병기를 말씀에서 찾다

스트레스, 슬럼프, 상한 마음,
Stress Slump Broken heart
외로움, 분노, 불안,
Loneliness Anger Anxiety
약점, 열등감, 죄책감,
Weakness Inferiority Guilt

[신간]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도서출판 아르카가 고성제 목사(평촌세순교회 담임)의 신간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제 목 그대로 정치 공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보여줄 것이다.

저자 고성제 목사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정치가 나와 이웃의 삶을 좌우하므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웃 사랑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정치 과잉도 문제이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이상으로 삼

는다면 이 또한 문제이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교회는 세상 정치와 ‘무관’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 매우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돼왔다. 6~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일부 교회와 소수의 목회자가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가담해 이른바 ‘교회 = 반정부 좌파’로 역사가 있었던 반면, 80년대 군사정권의 등장 이후엔 정반대로 보수적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정권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 우파적’이라는 좌우 극단의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교회 내에서조차 진보 정당이나 민주적 정부를 지지하기만 해도 좌파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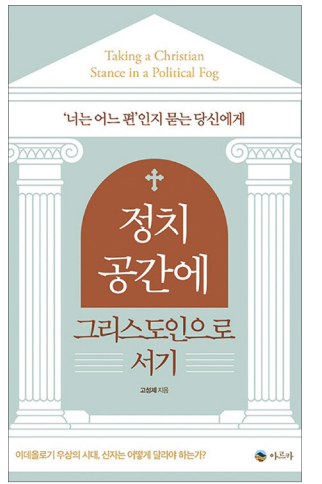
되며 반대로 극단적 보수적일 경우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한다. 이 책의 부제는 ‘너는 어느 편’인데 이처럼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를 묻는게 교회에서도 일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까지도 정치적 견해 차이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절정은 대통령 탄핵과 검찰개혁 갈등 이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있던 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스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간일 수 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서고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 나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사실 나의 설교를 통해

처음에는 교회에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반대로 갈등이 가라앉고 교회가 차분해졌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설교를 통해 모두가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를 잃을 정도로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정치 공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얻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고성제 목사는 부산대학교 상과대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평촌세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복음적 개혁·갱신·부흥과 건강한 복음적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협력하는 (사)복음과 도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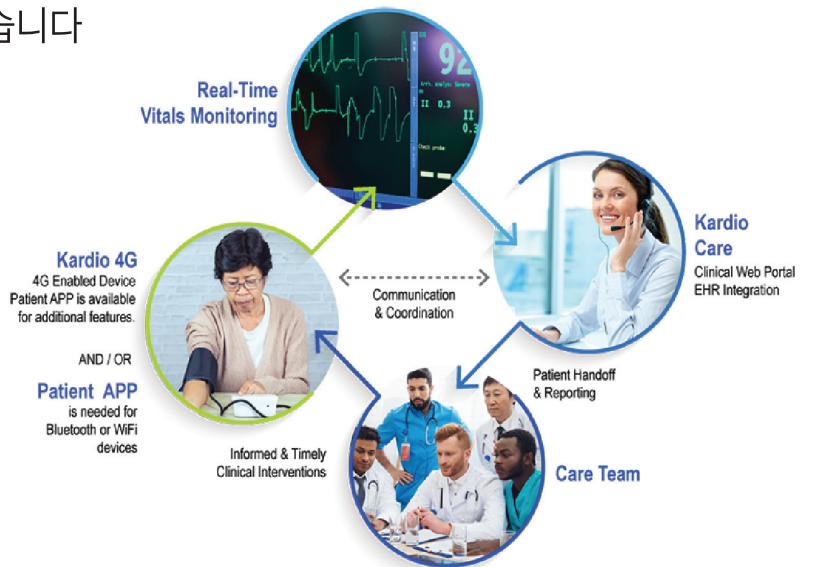
최승연 기자

시니어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십니까?
제 주치의와 대면하지 않고도 바이탈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담당의료진은 해당 측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디오 원격진료(RPM-Remote Patient Monitoring)

- 시중에서 구입한 저가 혈압기나 혈당기는 이제 치우십시오! 전국 유명대학병원에서 사용중인 혈압기와 혈당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바이탈을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담당 의료진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는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의사방문이 필요하거나 약처방을 변경한다면, 응급실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 바이탈이 정상밖으로 높거나 낮을때, 모니터링 담당자가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합니다
- 여행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합니다
- 서비스의 사용료나 취소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기기는 무료 대여이며,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병원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카디오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 Cardio Inc.
Tel) 714-494-1380 www.Cardio.Health email) Info@kardio.health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매트릭스: 리저렉션> (2)

<매트릭스> 등 대중문화, 가상과 복제 열광하는 이유

가상 영역, 신적 섭리 비틀고 조작해 만들어
실상 회피하고 거짓과 환상 좇는 문화 세대
성경, 자연과 영혼의 실상 냉정하게 밝혀내
복제지향 문화 속 현실 도피와 자기 신격화

◆가상과 복제: 한계 극복을 위해 복제되고 조작된 가상현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서사는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해 전편의 결말에서 죽는 것으로 확정된 두 주인공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와 트리니티(캐리엔 모스)를 되살려 놓는다.

근거가 빈약한 이 부활 서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가상현실이다. <매트릭스> 트릴로지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실제 몸은 캡슐형 튜브 안에 갇혔고, 정신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가상세계 안에 구속되어 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서사는 현실을 그럴듯하게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문화조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매트릭스: 리저렉션>도 정신의 감옥이라는 매트릭스의 부정적 역할을 강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할 기회를 되찾는 경로로서의 역할 또한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번째 기회를 쥐서 고맙다”고 한 트리니티의 대사는 가상현실이 현실을 도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초월하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을 그럴듯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복제하는 것은 오늘날 대중문화의 지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학문적·사상적·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복제지향의 문화조류는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물론이고, 얼마 전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멀티버스라는 설정을 통해 현실과 거의 흡사한 다중우주를 넘나드는 슈퍼히어로들의 활극을 그려내고 있다.

이 멀티버스 설정은 기존 히어

로 및 빌런 캐릭터들을 상업적으로 재탕해 활용하기 위한 조잡한 서사적 장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이렇게 다중으로 복제된 세계들이 현실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각종 초월적 체험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멀티버스 덕분에 시간의 여행, 또 다른 자아(alter ego)와의 만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최근의 대중문화가 가상세계나 다중우주에 매혹된 인간 군상을 자주 그려내는 이유를 자세히 파헤치면, 중국에는 인간에게 허락된 삶이 단 한 번 뿐이라는 엄정한 현실인식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발견된다.

◆가상과 욕망: 한 번 살고 죽는 엄정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성경은 죽음 이후 영혼의 영원한 앞날이 몇십 년에 불과한 이 짧은 생애의 행실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현대 실존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죽음 이후 영혼의 존속을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삶이 단 한 번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며 살아나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문화는 이렇게 삶의 유일회성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을 거부한다.

인생이 단 한 번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가능성이 폭넓게 제한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새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삶의 가능성 영역이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누구든 자기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지함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타인에 대한 봉사나 헌신, 진리에 대한 탐구, 보다 고결한 존재를 향한 갈망 등의 양태로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



<매트릭스> 시리즈 4편, <매트릭스: 리저렉션>.

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 긴장감 어린 일상으로부터 일탈 계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쏟아내는 콘텐츠들은 예술의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가소적(plastic)인 형태로 말초적인 흥취를 자극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오늘날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갈수록 더 중시하는 가상과 복제의 문화 조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존적 가능성이 거저된 방식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과 영역은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단 하나의 물리적 현실뿐이다. 그 현실을 여러 양태로 복제한 가상의 영역들은 온전한 신앙의 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인간이 창조해 낸 이런 가상의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 정하신 신적 섭리를 이리저리 비틀어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는 어긋난 특성들을 갖게 된다.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가상 공간 속에서 하늘을 날고, 발사된 총탄을 멈추며, 복잡한 지식을 불과 몇 초 만에 학습하는 장면들은 모두 삶의 가능성

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허위로 극대화한 사례이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주인공 피터 파커(톰 홀랜드 분)가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만나 도움과 위로를 얻는 상황 역시, 현실을 지배하는 신적 창조질서를 기교하게 비틀어 뛰어넘는 행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고대에는 이방 종교의 신화들이 이 가상으로 복제된 세계의 원형을 제공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각지에 널리 퍼졌던 영지주의 사상은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이상들이 집약된 관념적 가상세계에 대한 서구적 모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기 플라톤주의와 깊게 연결된 영지주의 사상은 이내 교회 내부로 침투해 기독교 영지주의의 이단으로 발전되었다. 당시 영지주의의 악영향이 워낙 컸던 탓에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딤후 4:7)”고 권고할 정도였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알고리즘과 감각의 조작을 통해 복제된 가상현실이 현실 초월의 쾌감을 선사하는 방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매트릭스> 트릴로지는 가상현실이 가진 이러한 매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영화계 역사에 길이 남는 작품이 되었다.

원래 <매트릭스> 트릴로지가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상현실이 선사하는 쾌락과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고, 어떻게든 현실로 돌아와 인류의 생존과 구원을 위해 분투하는 영웅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년 만에 개봉한 <매트릭스> 신작의 서사는 현실을 지켜내려던 전작의 서사와 방향을 달리해 현실과 가상의 불가피한 공존을 정당화한다.

이는 현실의 고단함보다 가상이 주는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가상에 빠져 한계를 초월해 보려는 현실도피의 문화 세태를 반영한다.

최근 유망한 미래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VR, AR, 메타버스, BCI(brain-computer interface, 뇌-컴퓨터 소통)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자연적 창조질서를 벗어나 인간이 조작 가능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정립하고자 하는 자기신격화 욕망의 발로로 이해될 수 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 역시 점차 가상에 침착되어가는 인류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화적 사례로 채택될 수 있다.

이처럼 실상을 회피하고 거짓과 환상을 좇는 데 익숙해진 문화세대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환영받지 못한다.

성경은 자연과 영혼의 실상을 지극히 냉정하고 예리하게 드러내 밝히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가상의 안락함에 길들여진 세대는 자연과 영혼의 냉혹하고 엄정한 현실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백만 불 그랜트 수상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릴리 재단(Lilly Foundation)이 후원하는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2차 프로젝트에 프로포즈를 제출, 채택되어 100만 불 그랜트를 수상했습니다.

100만불
그랜트 수상

프로포즈 제목 Culturally Competent Pastoral Leader Project

수상 금액 \$999,198

프로젝트 실행 기간 2022 - 2026년

향후 5년 중점 프로젝트

- 01 한어권 사역자와 영어권 사역자의 목회 파트너십과 리더십 함양 교육
- 02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 03 다문화 현상이 요구하는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
- 04 문화적 소통 능력이 탁월한 차세대 목회 리더 양성 교육
- 05 선교적 리더십으로 문화 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신학 교육

202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위 과정

학부(B.A.) 과정

- 신학(Theology)
- 사회복지학(Social Work)
- 국제경영학(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가정상담학(Family Counseling)

석사(M.A.) 과정

- 목회학(Divinity)
- 목회학 원목 집중 과정(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
-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박사(Doctorate) 과정

- 선교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개강일 | 1월 24일

수업 방식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수업 방식

- 온캠퍼스 수업(On-campus learning)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CANVAS based online learning)
(CANVAS: 북미 유수대학교가 사용하는 Online Learning Management Platform)
- 실시간 화상수업(Synchronous online learning)
- 온,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수업(Blended learning)

장학 및 학자금 지원

- 20여 종류의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Pell Grant)
- 주정부 학비지원(Cal Grant)
- 현역 및 퇴역군인 학비지원

자격 및 인준



가주교육국(BPPE)



기독교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유학생 I-20 발행

입학 상담 Tel. 562.926.1023

- 학부 과정 이명철 학장 (ext. 308 | mcleee@ptsa.edu)
- 목회학 석사 과정 김루빈 처장 (ext. 303 | rbkim@ptsa.edu)
- 상담학 석사 과정 김경준 디렉터 (ext. 310 | wisp3457@ptsa.edu)
- 선교학 석/박사 과정 신춘식 디렉터 (ext. 309 | doctor@ptsa.edu)

입학 지원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office@ptsa.edu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562-926-1023 | Fax 562-926-1025 | www.ptsa.edu